

/ 지역 단신 /

농협 완도군지부 등 농촌일손돕기



농협 완도군지부(지부장 정동한) 및 청해진 농협(조합장 김창곤) 임직원, 고한생각 주부모임 회원 등 30여명은 지난 2일 농촌 마을수확 일손돕기에 나서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일손돕기 봉사는 마을 수확이 한창인 완도군 군외면 달도리 일원에서 실시됐으며, 농촌인구 고령화로 일손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에 큰 도움을 줬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무안 '초의선사 茶 교육관' 준공

초의선사 탄생 220주년을 맞아 건립된 '초의선사(茶) 교육관 준공식'이 지난 4일 무안군 삼향면 와산리 초의선사 탄생지에서 열렸다.

전남도와 무안군이 주최하고 '초의선사 탄생문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 서삼석 무안군수, 기관·단체장, 현창사 업주진위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준공된 '茶 교육관'은 조선후기의 대선사(大禪師)이자 차의 맛을 외달린 초의선사로 기념해 81평 규모로 국비와 지방비 등 모두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해 1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이날 준공하게 됐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내일 '한·일 해양환경 학술세미나'

'2006 한·일 해양환경 학술세미나'가 7일 오후 목포해양대학교 제2공학관에서 열린다.

목포해양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후원으로 일본의 저명한 해양생물 학자와 국내 해양환경 전문가를 초청, '해양오염과 수산해양 생물'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고 5일 밝혔다.

이 세미나에서는 일본 하리시마 대학의 신이치 우 교수와 해파리의 대량 발생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목포해양대 이경선 교수의 '고이산화탄소의 환경과 해양동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한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문화재법 무시 '건축허가' 말썽

나주시, 보호구역내 다가구 주택 뒤늦게 공사중단 명령…유착의혹도

나주시가 문화재 보호법을 무시한 채 다가구 주택의 신축을 허가, 말썽을 빚고 있다.

6일 나주시에 따르면 문화재보호법 제20조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 보호구역 200m 이내에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나주시 교통 76-4번지에 신축중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현재 문화재로 지정된 '서성문' 성곽과 불과 2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도 나주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지상 3층의 다세대 주택 건축을 허가해 현재 지상 2층의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다.

하지만 나주시는 뒤늦게 이 곳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문화재청에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으나 성과보호를 위해 3층으로 허가하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신축했다가 최근 말썽이 돼 공사가 중단된 다가구주택 공사 현장.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는 것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아 우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 나주시 개발건축과 관계자는 "성벽이 문화재로 지정된 사설을 몰라서 발생된 실수이다"며 "2층으로 설계를 변경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다시 허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경우 건축허가가 접수서류 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1200지도에

해당 지번인 '76-4번지'인근이 '문화재보호구역' 표시가 2곳에 명시되어 있어 설득력을 잃고 있는 등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특히 나주시는 이 같은 사항이 관련 법률에 저촉된 사실을 지난 4월에 알고 있었는데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한달 뒤인 5월 29일에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영암읍~독천간 '아름다운 도로' 드라이브 코스 각광

건설교통부가 '아름다운 도로'로 지정한 영암군 영암읍~학산 독천간(지방도 819호) 간 빛꽃도로에는 최근 금계국이 만발해 영암을 찾는 관광객에게 드라이브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영암=김한님기자 hnkim@



녹동~소록도 연륙교 위용 드리내다

고흥 녹동에서 소록도를 잇는 1.2km의 연륙교 마지막 다리 상판이 지난 2일 연결되면서 소록도가 육지화 됐다.

6일 고흥군에 따르면 소록 대교로 명명된 이 연륙교는 지난 2일 교량 중앙에 세워진 2개의 다이아몬드형 주탑을 중심으로 12개의 교각 위에 거대한 다리 상판들이 모두 연결돼 소록도가 마침내 육지와 연결됐다.

2001년에 착공한 이 연륙교 가설 공사는 총공사비 1천634억원을 들

여 폭 11m, 총길이 1.2km의 현수교로 건설되고 있으며, 교량을 진입하는 2.1km의 2차선 접속도로도 최근 깔끔하게 포장은 끝났다.

이에 따라 소록대교는 앞으로 2개의 주탑에서 상판을 잡아 연결하는 케이블 공사가 끝나는 내년 6월 완공된다.

또 소록도와 금산(거금도)을 잇는 2.2km의 연륙교(사장교) 공사와 4.5km의 2차선 접속도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녹동=주각중기자 giju@

“고창 복분자축제 오세요”

15~18일까지 선운산 일대

열매수확 등 체험행사 다양

제2회 고창복분자축제가 오는 15~18일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기간 복분자 수확 체험과 복분자 요리 및 가공식품과 복분자 청국장 찌개 및 무침 요리, 카테일, 동치미 등 새로 선보인다.

전국 최고의 복분자 생산지로 복분자 생산과 청국장 판매, 청구대회, 청소년 트로트가 요제, 청소년 어울림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아산·부안·심원면 생산지에서 개최되는 복분자 체험행사에는 하루 500명이 참가해 열매를 직접 수확해 먹을 보고 가져갈 수도 있다.

복분자를 이용한 한과·떡·빵·쥬스·복분자술 등 가공식품과 복분자 청국장 찌개 및 무침 요리, 카테일, 동치미 등 새로 선보인다.

전국 최고의 복분자 생산지로 복분자 생산과 청국장 판매, 청구대회, 청소년 트로트가 요제, 청소년 어울림당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고창=김준원기자 jwkim@

목포 '부흥산 현충공원' 일부 완공

목포시 부흥동에 조성중인 '부흥산 현충공원'이 준공을 앞두고 있다.

목포시는 2004년부터 사업비 27억원을 들여 부흥산 근린공원 5천100여평의 부지에 500여명이 동시에 참배할 수 있는 탑신(20m), 상징조형물, 공원시설물 등을 갖춘 현충 공원을 조성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조형물 설치와 참배행사에 필요한 부대시설 공사가 마무리됐다.

시는 일부 시설들이 완공됨에 따라 이번 제51회 현충일 기념행사를 이곳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1967년 준공된 유달산 내 현충탑이 해발 180m, 경사도 70%로 접근성이 어렵고 부지가 협소해 목포의 관문인 영산강 하구둑 근처로 확장, 이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완도군민의 상' 수상자 3명 선정

환경·마재민, 명예군민·천인봉·김성범



마재민씨

천인봉씨

김성범씨

수상했다.

천씨는 드라마 '해신' 세트장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김씨는 장도 청해진유적과 고산 윤선도 유적 발굴을 실시, 완도 문화유산의 업적조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

금천공인중개사

☎(한)011-9600-4563

첨단월계공인중개사

☎(한)972-4585, 휴 011-804-6205

(첨단구자 무영 LC빌딩 시거리)

[공장 창고부지 및 투자추천물건]

①비아동

·지연녹지 2000평 담89만원
도로접 분할매각가능

②니주

·남형 1800평 담230만원 관리
지역 도로접 토목완료 분할
매각 가능

③북구 등립동

·생신녹지 1000평 담 42만원
도로접

④평동공단 준공입지

·900평 × 62평원

⑤평동공단내 공장 대지

·550평 건 200평 품 92평 매 5평
5억 1천만원

⑥기둔식당 부지

·250평 × 230평 품 150평 조망권
최상 신개발지 삼거리 코너

**[상권최고 4층
상가건물 매매]**

⑦대56평, 건 120평 보 1억
8천 月 400만 원 거리 코너

매 7억 2천만원

⑧아파트 2천세대입구 상가
대43, 건 120 보 8천 월 200
매 4억 1천만원

⑨신축원룸 대87, 건 140 보
9000 월 430만 품 13개 최고
급자재, 최신설비 매5억3천

광주광역시

금천구 도현동 하남신단 9번도로

·인근 진입로 8m로, 700평, 1100평
경장, 청교류터지역

첨단월계공인중개사 대리점

011-9600-4563

011-804-6205

011-4585

011-972-458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30-2405

011-2